



## 개도국 산업분석 리포트

# 한-터키 FTA의 전략적 가치와 양국간 협력 유망분야

### 목 차

---

I. 터키시장의 전략적 가치 .....	1
II. 한-터키 FTA의 경제적 타당성 .....	7
III. 양국간 협력 유망분야 .....	11

---



- 2010년 4월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고 한-터키 FTA 협상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대상국으로서 터키시장의 전략적 가치, 한-터키 FTA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양국간 협력 유망분야 및 증진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 I. 터키시장의 전략적 가치

### 1. 지정학적 중요성

#### □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되고, 터키 기준으로 지중해 건너편은 북부아프리카,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과 연결됨.
  - 지중해 건너편 북부아프리카를 제외하더라도 유럽지역으로는 불가리아 및 그리스, 흑해 건너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및 그루지야, 아시아 지역 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 등과 국경을 접함.
-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시장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인종적, 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



<그림 1> 지리적 요충지인 터키와 주변국가 위치도.



자료: WorldAtlas.

### □ 지역경제협력기구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담당

- 1964년 터키, 이란 및 파키스탄에 의해 출범된 지역협력개발기구 (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RCD)는 1984년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로 변경되면서 1992년에는 그 회원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됨.
- 2003년 7월 창설회원국 주도로 ECO 무역협정(4개국간)을 체결하였으며, ECO는 각료이사회(정책결정기구), 상주대표위원회 등으로 구성
- ※ 터키, 이란, 파키스탄(이상 1964년 가입),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상 1992년 추가 가입)
- 흑해 연안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에 결성된 흑해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에



서도 터키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초 11개국 이 모여 출범하였으나 세르비아 추가 가입으로 12개국\*으로 구성됨.

※ 터키, 그루지야,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1992년 가입), 세르비아(2004년 가입)

○ 터키 정부의 주도하에 1997년 1월 이슬람 개발도상국 8개국 각료 급 회담(Dveloping 8: D-8)이 이스탄불에서 개최됨. 1997년 당시 세계 인구의 13.5%에 해당하는 이슬람 개도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D-8\*은 이슬람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함.

※ 터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 2. 성장 잠재력

### □ 대표적인 "post-BRICs" 국가로 급부상

○ 4대 신흥투자시장(BRICs) 내 글로벌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투자시장의 대안으로 최근 터키가 급부상함.

- 골드만삭스가 BRICs를 언급한 이래 브릭스에 필적할 경제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NEXT-11로 지칭함. 또한, 미국 상무부는 10대 신흥시장으로 BEM(Big Emerging Market), 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는 경제규모가 급성장할 국가로 VISTA 국가를 각각 언급함.

<표 1> 신흥투자시장(post-BRICs) 지칭용어(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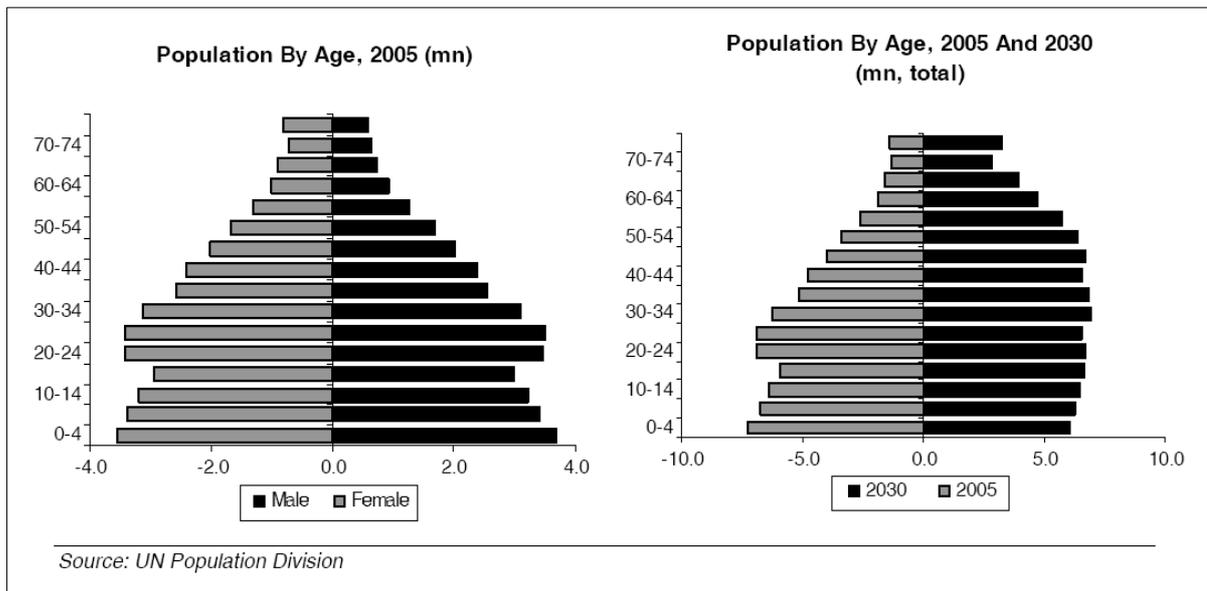
지칭용어	해당국가	제안자
NEXT-11	터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한국 (11개국)	골드만삭스
BEM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폴란드, 인도, 중국, 아세안, 한국 (10개국)	미국 상무부
VISTA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5개국)	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



### □ 풍부한 인적자원

- 터키 인구는 2009년 기준 7,260만 명으로 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 (8,280만)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 보유
- <그림 2>의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0~13세는 전체 인구의 28%, 14~60세는 64%로 분포되어 60세 초과 고령인구 비중은 8%에 불과한 반면, 35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63%로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편임.

<그림 2> 터키의 연령별 인구분포 비교



- 터키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 수준, 근로의욕 및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안정적인 경제성장 시현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터키 경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으나, 2004~07년 평균 7.4%의 경제성장 기록



- 터키는 1963년에 EU 가입을 신청한 이후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였고, 2007~13년 제9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
- 2009년 기준으로 터키 국내총생산(GDP)은 6,207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명목 GDP)은 8,550달러로 세계은행의 국가별 소득기준에 의하면,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 UMIC)으로 분류됨.

<표 2> 터키 경제성장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9.4	8.4	6.9	4.7	0.9
국내총생산	3,922	4,830	5,309	6,471	7,299
1인당 GDP	5,420	6,930	7,540	9,090	10,150

자료: IMF, OECD.

### 3. EU 경제권에 대한 접근성

#### □ EU시장 진출의 거점

- EU 인구는 5억 명에 달해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GDP 기준) 및 구매력을 보유한 EU에 대하여 중동 및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 역할
- 터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수출지향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역자유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을 적극 채택함.
-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WTO 및



EU 등 국제규정에 상응하도록 터키는 수출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1995년 12월 터키는 EU와 관세동맹(Customs Union)<sup>1)</sup>을 체결(2006년부터 발효)하였으며, EU의 공동무역정책에 따라 동유럽(EU 가입이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 글로벌기업의 투자 증가

- 터키가 EU 가입협상을 다시 시작한 2004년을 전후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숙련된 노동력 등으로 터키는 글로벌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시장으로 부상
- 독일,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EU 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터키로 대거 이전함.

<표 3> 터키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글로벌기업 현황

산업 구분	주요 진출업체(국가)
자동차	Ford(미), Renault(프), Toyota(일), Fiat(이탈리아)
원유·가스	Royal Dutch Shell(네덜란드), Exxon Mobil(미)
석유화학	BP(영), Royal Dutch Shell(네덜란드)
IT	Microsoft(미), Oracle(미), IBM(미)

1)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역내 회원국간 관세인하 및 철폐 등을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FTA와는 달리, 관세동맹은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하는 지역경제 통합체임.



## II. 한 - 터키 FTA의 경제적 타당성

### 1. 관세인하 효과분석

#### □ 터키의 관세부과 현황

- 터키의 관세대상 품목에서 종가세(*ad valorem*)를 부과하는 품목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97.9%에 해당되며, 면세품목 비중은 23.6%임. 면세품목을 제외하고 10% 이하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 비중은 57%에 달하며 10%를 초과하는 관세율 부과비중은 19.4%임.
- WTO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단순평균 수입관세율은 농산물 47.6%, 비농산물 5.0% 수준인데, 품목별로는 금속제품 3.7%, 섬유·의류 8.0%, 운송장비 5.1%, 전기기기 2.8% 등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터키의 관세율은 철도차량 6.7%, 기계부품 1.7%, 전기기기 2.8%, 광학정밀기기 1.6%, 철강 5.4% 등임.

<표 4> 터키의 관세동맹 체결국 현황

EFTA(1992), EU(1996), 이스라엘(1997), 루마니아(1998), 불가리아(1999),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등

#### □ 우리나라 및 터키의 산업경쟁력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산업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sup>2)</sup> 지수를 기준으로 대외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운송장비,

2)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는 특정품목의 세계 수출시장에서 비교대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에서 그 나라의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눈 값으로서 특정 국가의 수출품목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의미하며, RCA 지수가 1보다 크면(작으면) 당해 수출품목이 비교 우위적(열위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전기(부품), 정밀기계, 자동차 등이며, 터키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음식료품, 농림수산업 등으로 분석

<표 5> 한-터키의 산업별 RCA 지수 비교  
(2007년 기준)

	한국의 RCA 지수	터키의 RCA 지수
농림수산업	0.11	<b>1.26</b>
음식료품	0.20	<b>1.37</b>
석유화학·고무제품	0.87	0.49
섬유·의류	0.76	<b>4.40</b>
비금속광물제품	0.29	<b>1.65</b>
금속제품	<b>1.03</b>	<b>1.66</b>
전기(부품)	<b>1.98</b>	0.52
정밀기계	<b>1.94</b>	0.09
자동차	<b>1.40</b>	<b>1.57</b>
기타 운송장비	<b>2.72</b>	0.81

주: RCA 지수가 1.0 이상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의미함.  
자료: KIEP, "한-터키 FTA 추진 필요성과 분야별 고려사항", 2010. 2.

### □ 한-터키 FTA의 거시경제효과 추정

- 양국간 FTA 체결로 예상되는 거시경제효과를 분석(CGE 모형)<sup>3)</sup>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단기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고 터키의 경우 0.13% 정도의 성장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
- 관세인하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는 양국 모두 중장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나라가 터키에 비해 후생수준의 변화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3)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은 국내경제 및 대외거래 관련 경제변수를 포괄하는 일반균형모형의 일종으로서 FTA, 기후변화 등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연산모형임(KIEP, "한-터키 FTA 추진 필요성과 분야별 고려사항", 2010. 2).



<표 6> 한-터키 FTA의 거시경제효과 추정

	정태모형4)		자본축적모형5)	
	경제성장률(%)	후생변화6)(백만 달러)	경제성장률(%)	후생변화(백만 달러)
한 국	0.01	161.71	0.03	278.45
터 키	0.00	-17.74	0.13	250.47

주: 농수산업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대한 관세폐지(관세인하율 100%) 가정  
 자료: <표 5>와 같음.

## 2. 한-터키 FTA의 기대효과

### □ 한-터키 경제협력 증진 계기

- 양국간 교역규모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나 한-터키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는 한 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단순한 관세철폐의 효과 이외에도 수출입 및 투자 관계 개선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터키는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대신 우리나라에 대해 평균 4.2%<sup>7)</sup>(공산품 기준)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였지만, 한-터키 FTA가 체결되면 터키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터키는 지리적 요충지로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를 포괄하는 거대한 수출시장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수출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 터키는 중동, 중앙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4) 정태모형은 관세감축으로 산업생산이 높은 관세수준을 부과했던 산업에서 낮은 관세수준을 부과했던 산업으로 이전(잉여 생산요소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효과(단기)를 분석함.  
 5) 자본축적모형은 관세감축을 통해 증가된 산업생산의 일부가 저축되고 이를 투자형태로 변경되어 다시 산업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가정한 효과(중장기)를 분석함.  
 6) 산업생산 변동분을 주로 반영하는 실질 GDP와는 다르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교역조건의 변화 등을 반영함.  
 7) 터키는 EU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동맹(CU) 체결국, EU 및 WTO 규정에 의한 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 기타 제3국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3국에 해당되어 비교적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



수행하고 있어 주변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터키 역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7>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10년 3월 현재)

기체결 (발효일)	협상진행 (진행차수)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
칠레 (2004.4.1)	캐나다(13차 협상)	터키, 일본, 중국, 러시아,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SACU
싱가포르 (2006.3.2)	멕시코 (2차 협상)	
EFTA (2006.9.1)	GCC (2차 협상)	
ASEAN (2007.6.1)	호주 (2차 협상)	
인도 (2010.1.1)	뉴질랜드 (1차 협상)	
미국 (2007.4.2, 타결)	페루 (4차 협상)	
EU (2009.7.13, 협상종결)	콜롬비아 (1차 협상)	

자료: 외교통상부.

### □ 터키의 EU 가입 이전 수출시장 확대가능

- 터키는 1963년부터 EU 가입을 신청한 이후 상당기간 EU 가입이 보류되어 왔는데,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EU 가입을 신청했을 때에도 터키는 EU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터키는 2015년경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EU 회원국 중에는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은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그리스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터키의 EU 가입은 아직 요원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양국간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터키의 EU 가입 이전의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터키 및 주변시장을 겨냥하는 수출시장 확대 전략이 요망됨.



- 터키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상호간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어 EU 기준에 준하는 무역규정을 정비한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 투자진출을 확대하여 주변시장 등에 대한 수출확대가 가능함.

### III. 양국간 협력 유망분야

#### 1. 경제교류 현황

##### □ 양국간 교역현황 추이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2년 이전에는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3년 이후 교역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3.7억 달러(수출 40.9억 달러, 수입 2.8억 달러)에 달함.
- 2000~07년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실적은 연평균 25% 증가하였고, 터키 내수시장 증대로 자동차, 전자제품(휴대폰, PC)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터키는 2007년 우리나라의 25대 수출국에서 2009년 32대 수출국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되어 동 기간 중 대 터키 수출/수입 비중이 14배에서 6배로 줄어듦.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수출(3,635억 달러)의 0.73%를 차지함.



<표 8> 한-터키 교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교역	수출	4,087	3,773	2,661
	수입	282	362	434
	무역수지	3,805	3,411	2,227

자료: 무역협회.

###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 현황 추이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규모(투자금액 기준)는 2006년 이전에는 연평균 5천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연중 1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실적을 기록함. 2008년 하반기 이후 투자실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신고금액은 2009년에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대 터키 투자실적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2009년 말 기준(투자금액 누계)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규모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잔액(1,376억 달러)의 0.3%를 차지함.

<표 9>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규모 추이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09년 말
직접투자	신고법인수	10	5	9	60
	신고금액	131,150	89,797	247,907	713,593
	투자금액	112,804	69,299	207,117	409,79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 산업별 협력 유망분야 및 증진방안

### □ 자동차 산업

- 터키 자동차시장은 세계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18위(유럽내 6위) 수준이며, 서유럽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한 글로벌기업들의 생산기지 각축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주요 자동차 생산법인: Oyak Renault, Turk Otomobil Fabrikasi (Fiat), Toyota Motor, Ford Otosan, Hyundai Assan

<표 10> 터키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대

	2007	2008e	2009e	2010f
생산대수	1,099,413	1,147,110	745,275	804,311
(승용차)	(634,883)	(621,567)	(447,165)	(474,544)
수출대수	822,677	920,760	646,108	757,808

자료: BMI, Turkey Autos Report, 2010.

- 한-터키 FTA가 체결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터키 현지에 대한 완성 자동차공장 설립 및 자동차 부품업체 동반진출 등 후방산업체들에 대한 수출과 투자의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주요 수출품목에서도 자동차 및 관련부품 산업의 수출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국내 자동차 기업 진출시 EU 시장의 향후 자동차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등 제3국 시장으로도 수출확대 가능
-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1995년 터키 현지공장(Izmit)을 설립하여 1997년부터 양산(연간 10만대 생산능력)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터키 내수시장 점유율 1위(16.4%)를 기록함.



## □ 에너지 산업

- 터키 에너지 소비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며, 에너지 자원의 70% 이상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터키 정부는 원전(흑해 연안), 가스송유관(Nabucco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터키 에너지자원부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터키는 2005~2020년 신규 발전설비 912.8억 달러, 석유 160억 달러, 수력 60.9억 달러, 석탄 51.1억 달러 등 1,285.7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설비 투자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개발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전 등 발전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터키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상업용 원전이 없으며, 터키 정부는 2015년까지 5,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흑해연안(Sinop 지역) 및 지중해연안(Akkuyu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참여기업 선정 협의 중)
- ※ 2010년 3월, 양국간 원전 건설 공동선언문 서명
- 터키는 중앙아시아와의 문화적, 종교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터키계 국가들과 대형 에너지자원 개발프로젝트에 터키 관련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터키 정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해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 교통인프라 산업

- 터키에서 화물 및 승객 운송량의 90% 이상은 도로에 집중되어 있어 철도 및 해상운송 비중은 저조한 상태임. 이에 따라 향후 대중교통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고려한다면,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터키 철도청(TCDD)에 따르면,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등 철도 현대화사업에 터키 정부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데, 2007~13년 터키 정부예산에서 교통·통신 인프라 부문에 대하여 총예산의 26%(440억 리라)가 배정됨.

<표 11> 터키의 주요 교통인프라 투자프로젝트 개황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투자금액	건설기간	시행업체
보스포러스해협 해저터널	3,160	2004~10	Gama, Nurol 등
이즈미르 항구	1,275	2007	Hutchinson Port
이스탄불 지하철 확장	1,157	2008~13	Astaldi, Makyol 등
이스탄불-앙카라 고속철도	785	2003~08	CRCC-CMC-CENGIZ
이스탄불 국제공항	555	2007~10	GMR Infrastructure 등

자료: BMI, Turkey Infrastructure Report, 2010.

- 터키 정부는 도시내 지하철공사, 주요 도시간 연결철도 및 해저 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전동차 수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전체시장을 겨냥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필요
- 2006년 3월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주)이 마르마라해 해저터널공사 전동차사업을 공적 수출신용(유상원조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혼합신용) 지원으로 수주(1.4억 달러)한 경험이 있음.



### □ 정보통신 산업

- 터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기초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2006~10년 IT 부문에 대해 28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인구 연령대가 낮은 터키의 인구구조상 IT 개발수요가 잠재되어 있고 터키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
  - 최근 터키의 데이터 정보처리 및 통신장비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ICT 관련 우리 업체의 진출 유망

<표 12> 터키 IT시장 부문별 부가가치 추정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8e	2009e	2010f
총 부가가치	5,638	6,596	6,332	6,649
하드웨어	3,834	4,518	4,369	4,621
소프트웨어	761	874	823	848
ICT 서비스	1,043	1,204	1,140	1,180

자료: BMI, Turkey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 조양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